섬마을 수험생 '불공정 수능' 언제까지

신안 등 전남 7개교 139명 수험장 없어 매년 육지 원정 낯선 모텔·친척집서 준비 컨디션 조절하기 어려워 교육 소외에 수능까지 불이익 "동등한 조건서 시험 봤으면"

전남 섬지역 고교생들의 '불공정 수능'이 되풀이 되고 있다.

수능시험장이 없다 보니 수능 2~3일 전부터 익숙한 고향집을 떠나 인근 도시 낯선 모텔 등에서 숙식을 해결해야 하고, 수능준비도 그 흔한 학원 한 곳 없는 탓에 교내 자율 동아리 등을 구성해 스스로 해결하고 있는 형편이다.

13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원정 수능 길에 나서는 전남지역 수험생은 7개 고등학교 139명이다. 지역별로는 신안 도초고 64명, 임자고 6명, 하의고 9명, 진도 조도고 12명, 여수 여남고 23명, 완도 노화고 15명, 완도금일고 10명 등이다.

섬마을 학교에선 해마다 학생들을 위해 수험장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전남도교육청은 인력 및 시험 보안문제 등으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또 수험장 문제는 상급기관인 교육부 소관으로, 자체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수능 문제지는 시험일 3, 4일 전 인쇄돼 각 시·도로 운송된 후 시험 당일 새벽 수험장으로 옮겨지는데, 섬 지역에 수험장이 만들어질 경우 시험 당일 배편을 이용해 시험지를 운송·배부·회수하는 탓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1개 수험장에 한 학교 수험생 비율이 40%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도 섬마을 수험장 설치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는 게 교육당국의 해명이다.

반면 섬마을 학생과 학부모들은 시험지를 하루 일찍 섬으로 배송해 지구대 등에 보관하면 되고, 수험생 비율 초과 문제도 섬 지역 등에 한해 예외 규정을 두면 될 일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일단 섬 지역 수험생들에게 1박 2일 기준 숙박비와 교통비 명목으로 1인당 1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12일 육지로 나온 하의고 학생들에겐 2박이 적용돼 15만원씩이 지원됐다.

수능 예비소집일인 13일 신안 도초고 학생 64명도 오전 10시께 도초도에서 쾌속선을 타고 1시간 거리의 목포로 향했다. 목포에 도착한 도초고 수험생들은 수험장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모텔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수능을 보게 된다.

섬에서 뭍으로 나온 학생들은 친척 등 특별한 연고가 없을 경우 모텔에서 지내게 된다. 섬마을 고교생들에겐 수능날 아침까지 낯선 모텔에서 컨디션 관리를 해야 하는 현실이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수험생 김재혁(17·도초고 3년)군은 "평생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시험을 낯선 곳에서 보게돼 부담감이 크다"며 "해마다 시험 막바지 최상의 컨디션을 갖춰야 하지만 섬지역 수험생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 후배들은 최소한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들이 수능일에 먹게 되는 점심 도시락도 문제다. 일반 수험생들은 수능 당일 부모님이 마련해준 '집밥'에 따뜻한 점심 도시락을 챙겨 먹지만, 섬지역 학생들은 수험장 인근 식당 등을 통해 아침을 먹고 도시락도 준비한다. 학부모와 교사들은 학생들이 평소와 다른 음식을 먹고 식중독 등 몸에 탈이라도 날까봐 걱정이 크다.

이들은 사실 수능을 준비하는 고교생활 3년 내내 '사교육 소외' 등 도시학생에 비해 열악한 조건에서 수능에 대비한다.

주말이면 육지에서 사교육을 받는 일부 예·체능계 학생을 제외하곤, 대부분의 학생들은 교내 자율 동아리 등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있다는 게 섬마을 고교생들의 설명이다.

섬마을 교사들도 수능을 앞두고 육지행 스케줄을 잡느라 수험생처럼 스트레스를 받긴 마찬가지다. 교사들은 학생들을 대신해 기상청 등에 날씨를 확인하고, 모텔 예약 등도 전담한다.

이창균 신안 도초고 교장은 "도시의 낯선 모텔에서 자고 시험을 봐야하는 도서(섬) 지역 학생들은 아무래도 불리할 수밖에 없다. 매년 섬에 사는 학생들을 위해 수험장을 설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여러 논리에 밀려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서 "어른들이 조금만 고생하면 학생들이 편하게 시험을 볼 수 있게 된다. 섬 지역 아이들이 겪고 있는 불공정한 여건에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온라인 달군 '주차 방해 텃세'

마을 주민이 화순국화축제 보러 온 외지차량 하루 넘게 가로막아

누리꾼 분개…단체행동 응징 차주 부부 "반성" 사과 글 올려

화순에서 공터에 주차한 외지 차량을 하루 넘게 가로막은 마을 주민의 몰상식한 행태가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이 직접 응징에 나섰다.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따르면 지난 10일 '적반하장 부부 때문에 하루 동안 차를 못 빼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화순군 국화축제를 구경하기 위해 공터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오후 6시께 돌아왔더니 산타페 차량이 자신의 차량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며 사진을 첨부했다. 산타페에는 전화번호조차 없었다고 한다. 그는 어렵게 산타페 차주의 전화번호를 알아내 차를 빼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고, 밤 10시께까지 기다리다가 결국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작성자는 다음날 다시 해당 공터에 찾아갔지만, 이번에는 스파크 차량이 가로막고 있었다고 한다.

알고 보니 전날 자신의 차량을 가로막고 있었던 산타페 차주 부인의 차량이었다. 이 차주도 차량을 빼주지 않았으며, 되레 "우리 집 옆에 주차한 게 문제냐""내차 절대 건드리지 말라"는 말만 반복했다고 한다.

이러한 사정을 접하게 된 네티즌들은 '사과는커녕 적반하장식 태도가 어이없다', '관할 군청에 민원을 넣어 버릇을 고쳐야 한다' 등의 댓글을 달며 차주를 맹비난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해당 공터를 찾아가 문제의 발단이 된 차주의 차량을 앞뒤로 가로막는가 하면 화순군청 홈페이지에 집단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이 때문에 군청 홈페이지는 트래픽 증가로 한때 먹통이 됐다. 비판이 확산하자 차주 부부는 뒤늦게 보배드림을 통해 "반성하고 있다"며 사과의 글을 올렸다.

이와 관련해 화순군 관계자는 "주차와 관련한 민원이 접수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시정할 부분이 있다면 시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광주 월산동 원룸서 50대 여성 숨진 채 발견

광주시 남구의 한 원룸에서 5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0분께 광주시 남구 월산동의 한 원룸에서 A(여·53)씨가 피를 흘린 채 숨져 있는 것을 집주인이자 사실혼 관계인 B(56)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A씨는 입술의 일부가 찢어진 상태였다. A씨가 숨진 채 발견된 원룸에는 전날 마신 것으로 추정되는 소주 됫병(1.8ℓ) 1개가 발견됐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전날 함께 술을 마시며 사소한 문제로 다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씨는 한 알콜중독 치료 병원에서 만나 동거를 시작한 사실혼 관계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얼굴 등에서 일부 상처가 발견됐지만 폭행에 대한 근거로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정확한 사인 확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클린 북구' 환경정화 13일 '클린북구의 날'을 맞아 문인 광주 북구청장과 자생단체 회원, 자원봉사자들이 호남고속도로 주변에 버려진 불법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환경정화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

교통사고 낸 현직 경찰관, 음주측정 거부하고 뺑소니

현직 경찰관이 교통사고 후 사고 수습과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달아났다가 붙잡혔다.

목포경찰은 13일 "음주측정 거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완도경찰서 소속 A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경위는 이날 새벽 1시 25분께 목포시 부흥동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현장을 이탈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불응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경위의 싼타페 승용차는 1차선, 택시는 2차선으로 주행 중이었으며 싼타페 조수석 쪽과 택시 운전석이 충돌했다.

A경위는 사고 직후 차를 세우지 않고 수백m를 더 달려 차를 버리고 떠났다. 뺑소니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에서 A 경위를 발견하고 음주 측정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A 경위는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A경위는 또다시 수백m를 달아났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세월호특조위 '헬기 구조 지연' 검찰 수사 요청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를 위해 현장에 투입된 헬기를 응급환자가 아닌 해경 청장이 탔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특조위는 13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오전 제46차 전원위원회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 및 수색의 적정성에 대한 수사요청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그동안의 언론보도와 유가족들이 제기했던 구조수색 관련 내용을 시간대별로 정리하고 관련 문제점을 확인했다"며 김석균 청장, 김수현 서해청장, 3009함장 등 총 4명의 해경 지휘부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조위에 따르면 해경 지휘부는 참사 당일 오후 5시 24분께 발견된 A군에 대해 의사로부터 심폐소생술을 지속할 것과 병원으로 이송할 것을 지시받고도 A군을 헬기가 아닌 함정으로 이송했다.

A군은 발견 시각으로부터 4시간 41분이 경과한 밤 10시 5분께 병원에 도착했다.

특조위는 "(지휘부의 구조 방기가) 결국 피해자를 익사 또는 저체온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관련자들의 범죄혐의를 신속히 밝힐 필요가 있어 수사요청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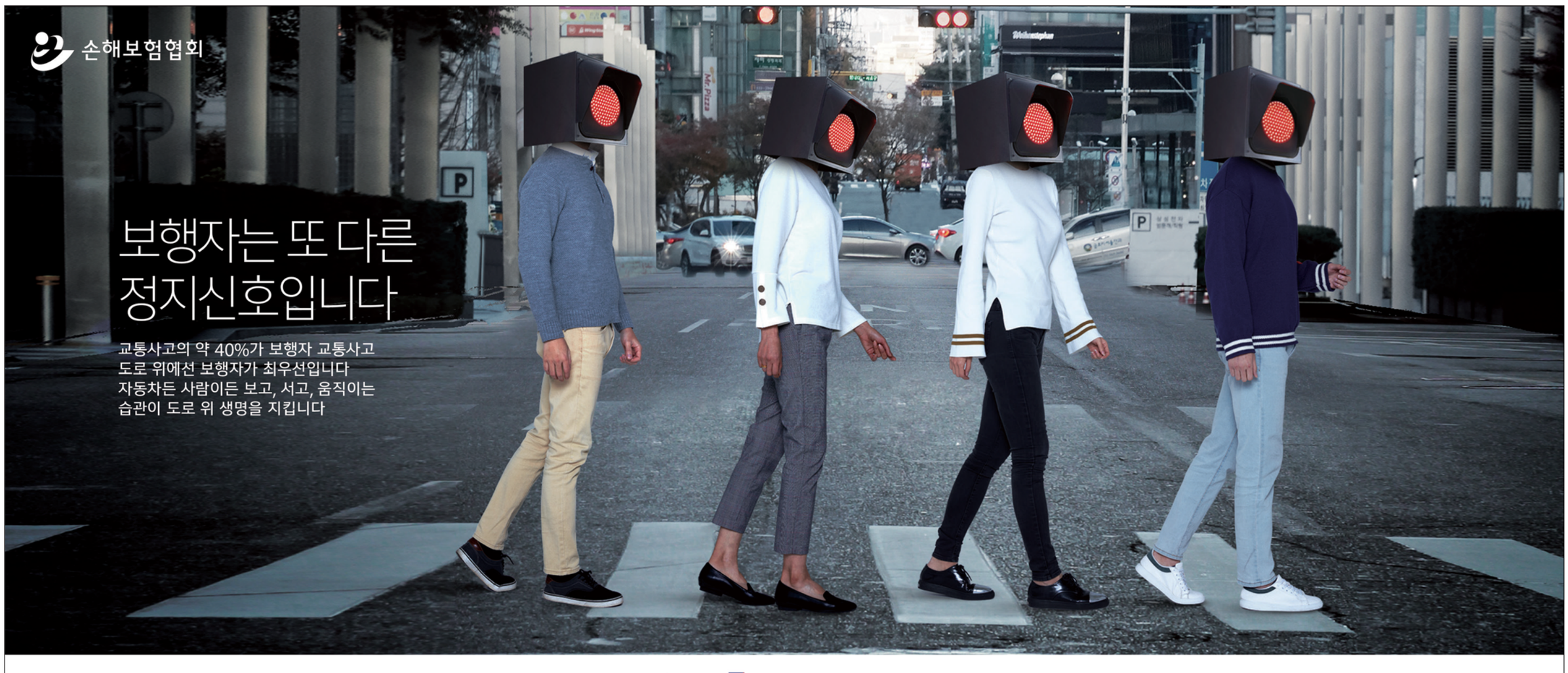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개 짖는 소리에 이웃과 말다툼하다 흉기까지 휘둘러

쌍나팔

○…개 짖는 소리에 화가 나 이웃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까지 휘두른 50대가 특수상해 혐의로 경찰서행.

○…13일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A(55)씨는 이날 새벽 0시 20분께 자신이 거주하는 광주시 광산구 한 아파트 복도에서 옆집 개가 늦은 시간까지 짖어대자 찾아가 말다툼을 벌였는데 이 소리에 평소 옆집 주민과 친분이 있던 아래층 주민 B(44)씨가 자신을 말리자 싸움을 벌인 끝에 집에 들어가 흉기를 꺼내 휘둘렀다는 것.

○…경찰관계자는 "B씨보다 체구가 작고 나이가 많은 A씨가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당하자 흉기를 꺼내 휘두른 것으로 보인다"며 "B씨는 약지를 깊게 베였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설명.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